



박주영-이근호 세네갈 격파 선봉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후배들에게 빠른 패배를 안겼던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 대신 실력을 과시하고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대비한 적응력을 높였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14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아프리카의 ‘북병’ 세네갈과 친선경기를 벌인다.

한국이 지난 6월17일 이란과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8차전 이후 세 번째 치르는 모의고사다.

세네갈은 월드컵 아프리카 지역예선에서 일찌감치 탈락했지만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개막전에서 프랑스를 꺾는 이변을 일으키며 8강까지 올랐던 팀이다.

허정무 감독은 박주영(AS모나코)과 이근호(이와타) 투톱으로 선발 출격시켜 세네갈의 골문을 열겠다는 심산이다.

허정무 號 오늘밤 아프리카팀 상대 월드컵 모의고사

‘박지성 시프트’ 활용... 완성도 높이고 해외파 총점점



세네갈과의 평가전을 앞두고 있는 한국축구대표팀 마무리 훈련이 열린 13일 오후 파주 NFC에서 차두리와 설기현이 공 뺏기 미니 게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네갈 평가전 예상 베스트 11



박주영과 이근호는 12일 전출훈련 때 오랜만에 공격 쌍두마차로 나서 호흡을 맞췄다. 박주영과 이근호가 투톱으로 나선 건 지난 6월17일 이란과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8차전이 마지막이었다.

지난 8월12일 파라과이와 평가전 때 ‘울드브이’ 이동국(전북)과 이근호가 듀오로 나섰다. 지난달 5일 호주와 친선경기에선 박주영-이동국 조합을 실패했다.

박주영은 파라과이와 평가전에서 결승골, 호주와 평가전에서 선제골을 사냥했던 여세를 몰아 A매치 세 경기 득점포를 가동하며 A매치 25경기 연속 무패(13승 12무) 중인 허정무호의 불패 신화의 선봉에 서겠다는 각오다.

지난 8월28일 이란과 평가전 이후 A매치에서 골망을 흔들지 못했던 이근호도 득점포 침묵을 깨겠다고 버리고 있다.

좌우 날개는 ‘캡틴’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창호(불턴 원더러스)가 책임진다. 박지성은 독감 여파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경기 연속 출전선상 명단에 빠졌지만 대표팀

의 주장으로 허정무 감독 전술 변화의 핵심으로 활약한다. 허정무 감독은 상황에 따라서는 4-2-3-1 전형으로 바꿔 박지성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하는 ‘박지성 시프트’를 쓸 것으로 보인다.

이창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넣는 등 세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린 상승세를 발판삼아 대표팀의 주축으로 활약한다.

라 중앙 미드필더 폼비는 먼저 김남일(고베)-조원희(위건) 조합이 선발로 나시고 K-리거 기성용(서울)-김정우(성남)가 뒤를 받친다.

포백 수비라인은 허벅지 근육을 다쳐 우려를 샀던 차두리(프라이부르크)를 시합하기 위해 왼쪽부터 이영표(알 힐랄)-이정세(교토)-조용현(제주)-차두리가 늘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 골키퍼 장갑은 변함없이 ‘거미손’ 이은재(수원)가 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전국체전 ‘기분좋은 출발’

광주 11개, 전남 10개 종목 부전승 기본점수 두둑

농구·야구 등 1회전서 1차전 ‘형제 대결’ 불가피

광주·전남이 제 9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두둑한 기본점수로 기분좋은 출발을 보였다.

전남과 광주가 행운의 부전승으로 얻은 기본점수가 각각 2천97점과 2천78점으로 전국 18개 시·도 중 대전·경기 다음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또 광주와 전남은 이번 대회에서 농구·야구·유도 등 8개 종목에서 11차례나 1차전서 맞붙고, 레슬링·테니스·하키 3종목은 같은 종목에서 사이좋게 부전승으로 2회전에 진출했다.

지난달 전국체육대회 시·도대표자회의에서 실시했던 대전추첨 결과 광주·전남이 타시·도에 비해 비교적 부전승 행운이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정구·배구·탁구·하키·테니스·배드민턴·세팍타크로·복싱·레슬링·유도 등 10개 종목에서 바로 2차전에 진출하게 됐다. 특히 탁구(365점)·하키(364점)·세팍타크로(169점)·배구(378점) 등 배당점수가 큰 단체종목이 1회전을 통과 함으로써 기본점수 확보에 큰 힘이 되었다.

광주는 탁구·핸드볼·농구·테니스·하키·배드민턴·소프트볼·복싱·레슬링·유수·스쿼시 등 11개 종목에서 부전승 행운을 안았다.

이번 대회 개최지인 대전은 전국종목 1회전 통과라는 ‘개최지 혜택’으로 기본점수 1만6천577점을 얻었다. 경기는 11개 종목에서 3천112점을 확보해 대전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형제지간’ 광주와 전남은 이번 대회 1차전에서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을 11번이나 치러야 한다.

단체전의 경우 농구(남자일반부)에서 조선대와 초당대(22일), 야구(일반부)는 동당대와 대불대(21일), 펜싱(남자일반부 예예)은 광주선발과 전남선발(23일) 그리고 핸드볼(여

고부)에선 조대여고와 백제고(20일)가 야입지만 1차전 승부를 가리게 되었다. 개인전에선 유도·탁구·테니스에서 각각 2개 종별이, 태권도는 1개 종별이 맞붙는다.

하지만 3개 종목에선 광주와 전남이 맞붙지 않고 사이좋게 2회전에 오른다. 레슬링(여자일반부 자유형 50kg급)에서 광주 권혜준과 전남 구본숙이, 테니스(여대부 개인단식)에서 광주 박세라와 전남 정구현이 그리고 하키(남고부 단체)에서 광주일고와 담양공고가 1회전을 힘 한번 쓰지 않고 통과하게 됐다.

양 체육회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전력 약세인 종목에서 1차전 통과 행운을 안게돼 기분좋은 출발을 하게 됐다”면서 “본 경기에서는 행운 보다 실력으로 득점 레이스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제90회 전국체전은 오는 20일 대전에서 개막돼 2만4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44개 종목에 걸쳐 7일간 기량을 겨루게 된다. 광주는 41개 종목에 1천256명(선수 928명·임원 328명), 전남은 44개 종목에 1천685명(선수 1천244명·임원 441명)의 선수단이 각각 참가한다. /서승원기자 swse@

광양제철 vs 동북고, 금호 vs 대건고 등

고교클럽 ‘챌린지리그’ 17일 순위 결정전

프로축구 K-리그 산하 18세 이하(U-18) 클럽이 참가한 ‘2009 SBS 고교클럽 챌린지리그’ 순위결정전이 오는 17일 열린다.

A조 6개 팀과 B조 7개 팀이 3라운드를 치러 각 조 같은 순위팀끼리 맞붙는 순위

결정전은 서울(동북고)-전남(광양제철고) 성남(풍생고)-포항(포철공고) 수원(매탄고)-부산(동래고) 경남(진주고)-대전(충남기계공고) 전북(영생고)-울산(현대고) 광주(금호고)-인천(대건고)간 대결로 치러진다.

이창호·박영훈·허영호 ‘관리장성 넘었다’

한국의 정예부대가 중국의 인체전술 벽을 뚫었다.

13일 대전시 유성구 삼성화재 유성연수원 내 특설대극실에서 열린 제14회 삼성화재월드바둑마스터스 16강전에 5명이 출전한 한국은 이창호·박영훈·허영호 등 간판들이 승리하며 3명이 8강진출에 성공했다.

이창호 9단은 덩웨이(중국) 9단을 맞아 상대의 착실한 살리전에 고전하며 한때 패배의 위기까지 몰렸다. 그러나 허약한 중앙 흑 두집을 공격하며 추격을 개시, 침착하게 따라붙었고 중반에 특유의 현란한 끝내기를 선보이며 역전승을 일궈냈다.

10일 랭킹에서 생애 최하위인 4위까지 추락하며 자존심을 구긴 이창호는 대회 직전

인 9일 한국리에서 ‘천적’ 강동우 9단에게 패하면서 컨디션 난조에 빠지는 듯 했으나, 이날 승리로 국제대회에 강한 면모를 보여준 건재함을 과시했다.

박영훈 9단도 왕야오(중국) 6단을 제압하며 8강에 합류했다. 정밀한 계산이 특이한 ‘전자계산기’ 박영훈은 무려 357수까지 가는 장기전 끝에 절체절명의 바둑을 백으로 반집중하며 자신의 별명이 허명이 아님을 증명했다.

한국랭킹 10위에 올라있는 허영호 7단도 저우허양(중국) 9단에게 승리하며 생애 첫 세계대회 8강에 진출하는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최철한 9단은 강적 천야오에 9단에게 5집반을 저 달락했다.

B조 7위인 대구(현충고)는 순위결정전 없이 13위가 된다.

13일 오후 신문로 축구회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추첨에서는 동북고·풍생고·매탄고·진주고·영생고·금호고가 각각 홈 개최권을 받았다. 구체적인 경기 장소와 시간은 14일 확정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SBS가 후원하는 이 대회는 클럽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유소년 축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열렸다. /연합뉴스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8강 진출

최철한은 천야오에 저 달락

14일에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8강전에서 이창호는 저우허양 5단과, 박영훈은 중제와 한중전을 벌인다. 허영호도 최철한을 상대로 생애 첫 4강진입을 노린다. 우승상금은 2억5천만원이다. /연합뉴스



14일(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 vs 세네갈>(19 : 45-SBS)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 vs 삼성생명>(16 : 50-SBS스포츠)

금산공인중개사 T.681-5668 H.011-601-5354 (금동동 새마을역 건너, 2순환도로변) 상무 신도시 중심 상업용지 (C1지역)매매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건너편, 삼성화재빌딩 옆 4면 광로본 대지 약 2850㎡, 가격 협의결정 •근린시설, APT 신축, 병원, 일반상가, 기타 중심상업시설 가능 •최고의 교통접근(광주시 청접근성과 5.18 광로본) •광주 최고의 상권 최고의 입지 상업지역 •현재 10층 신축건물 앞

첨단OK공인중개사 김병준 T.971-0150 H.011-633-5592 (첨단지구 쌍암호수공원 옆 모아아파트상가 105호) ▶수원지구 대지 -상업용지: 753㎡ -매매가: 6억 8,400만 ▶첨단지구 대지 -상업용지: 435㎡ -매매가: 3억 5,000만 구매(3.3㎡당 270만원) 공시지가보다 저렴(롯데슈퍼 인근) -상업용지: 380㎡, 매매가: 4억 원 (영파호텔 인근) -상업용지: 280㎡, -매매가: 2억 5,200만원 (3.3㎡당 300만원) ▶자녀독지 매매 -임야: 4,620㎡(1400py) -매매가: 11억 원 2천 (분할가능) ▶투자빌딩 매매 -대지: 1,891㎡, 건물: 3,412㎡ -매매: 45억, 용차: 17억 -보증금: 14억, 월세: 2천만원 -대지: 463㎡, 건물: 1,829㎡ -매매: 15억 3천만, 용차: 7억 5천만 -보증금: 1억 1천만 -월세: 7백 20만원 (공실있음) Naver 첨단지구 www.gsclty.co.kr

正心 正視 正行 명당 공인중개사 062)431-2834 (H.P) 010-6460-2834 ▶광주 북구 태평동 영락공영 부근 804㎡(281평) 매매가 3,500만 -대형차량 진입가능, 도합연호 도차기 가능 -이동수익, 사재물, 민원소재 없음 -도로접, 가복지 및 주일농장 적합 *전남 화순군 이안면 초빙리 임야 104,72㎡(32,000평) 매가 10억 2천원 -관리지역 일부포함, 차중계곡 및 저수지 -원형 잔디 산, 무지개, 목장용지 가능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지리 임야 1만 8천 700평, 평당 1만 2천 -도로접 임야이며 현 수령농은 면허나무 숲, 덩토지에 80평종자, 발전소 *전남 담양군 말산면 일거리 임야 1,670평 평당 1만 -계곡관리지역, 2차선도로500m급 농촌발전요인, 사할 및 전원주택지 적합 ▶전남 담양군 남면 현리리 대지 및 1683㎡(300평), 평당 80만 -단양면이 바라보이는 주변, 전망경 매우 임호, 실사용가능 1000평 -나무 건축가능한 대지 100평포함되어 전원주택및 사할기 적합 ▶담양군 금성면 현리리 임야 450,186㎡(13,642평), 평당 255만 -옥동천, 지형 완경사도 전방관종음, -민원소재 없음, 목장 및 목장용지 가능 ▶담양군 금성면 대지리 대지 500평 및 1,000평, 평당 25만 -2차선도로와 접해있으며 전원주택, 공장정착도 적합 ▶전남 담양군 다덕면 인삼리 임야 43,447㎡(13,180평), 평당 255만 원 -대형차량 진입가능, 도합연호 도차기 가능 -전남 담양군 월산면 광림리 임야 9421㎡(2875평), 평당 2만 -전체 계획관리지역, 민원소재없음, 2차선도로 240m급 -리조트 관광시설을 설치 가능하고 투자기회 임호 *전남 담양군 용인 일거리 임야 1,023,002㎡(31만 835평) 평당 550만 -2차선도로 접, 관리지역포함, 차량진입 가능, 휴양림, 요양원 등 조성가능 *전남 장성군 심서면 삼계리 전경 2307평, 평당 181만 -토지소재면 전 170주 시세, 공평 및 상고 또는 투자기회로 적합 *전남 장성군 진영면 신리리 임야 6,680㎡(1,416평), 평당 121만 -차량진입 가능, 투자기회 매우 임호 ▶전남 무안군 해례면 일거리 임야 190,528㎡(5707, 834평), 평당 925만 -2차선도로에 접한 목장용지이며 현방은 담으로 사용 *전남 보성군 결백면 수녕리 임야 2,567,157㎡(77만 565평), 평당 7만 -토지소재 임도없음, 현 나무 조림, 80%이상 개발 가능, 토질 및 전망 임호 ▶전북 순창군 등계면 이등리 임야 2,185㎡(6,740평) 가격은 협의후 결정 -차량진입 가능, 현 매물상장 및 단양농장 *필요하신 각종 토지를 원도 및 위성 위성을 다해 구해드립니다.

Table with real estate listings for Gwangju and Jeonnam regions, including area, price, and agent information.

Table with real estate listings for Gwangju and Jeonnam regions, including area, price, and agent information.